

[TV]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병역특례 부실근무 논란' 사이 현역병 징집?

복무기간중 100여 차례 연례활동 의혹... 검찰 '편입취소' 결정에 달려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 근무했다는 논란이 휩싸인 가수 사이(본명 박재상)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희재 부장검사)는 29일 사이가 근무한 F사 대표와 소속사 매니저를 소환, 사이가 특례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근무 실태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사이를 직접 소환한 방침이다.

사이의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복무했으나 이 기간에 100여 차례나 되는 연례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 측은 "복무기간 콘서트를 연 것은 연 2회 미만이며 다른 가수의 공연과 대하 축제 게스트로 선 것도 연 10여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이 같은 의혹이 사실상 규명될 경우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던 사이는 군 입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30일 "검찰에서 산업기능요원 취소 요청 통보가 오면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검찰의 통보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입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제41조는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로 전면연구결론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검찰의 통보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입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제41조는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로 전면연구결론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운동권 딸의 자살로 운동가가 된 부모

'MBC스페셜' 민주화 항쟁 20주년 특집 6월 2일 방송

박종철과 이한열. 1987년 민주화 항쟁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하던 시절 박씨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 연합회에서 활동했고 이내 학교 내에 설치돼 있던 조사실에 끌려간다.

'MBC스페셜'은 6월2일 밤 11시40분에 민주화 항쟁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너는 살고 내가 죽었다'로 1987년 2월 갑작스러운 자살로 대학생 딸을 잃은 부모의 삶을 따라가본다.

1987년 서울고대 재학생이던 22살의 박선영 씨는 자취하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목탑방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하던 시절 박씨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 연합회에서 활동했고 이내 학교 내에 설치돼 있던 조사실에 끌려간다.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사할 수 없다는 소리에 공감했던 박씨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난데없이 딸을 잃은 부모는 슬픔을 삭이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제작진은 딸의 죽음으로 삶이 변해버린 부모에게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들어본다.

부모에게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들어본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with details on discounts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31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